수능국어 2019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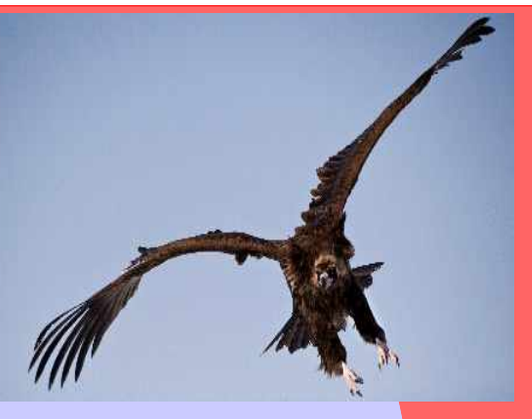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대시/고전시가 편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사고 방법
- 2018/2017 수능형 고난도 유형문제 및 실전문제 수록



방법은있다

방법은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9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대시 / 고전시가편

이성호 저

- 2018, 17학년도 기출수능문제 유형인 갈래 복합과 시대 복합 문제 수록
- 현재 학년도 기출수능문제를 싣고 풀이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방향 제시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실전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시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보기로 제시
-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 성 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독해/논리편〉〈문법/화법/작문편〉 집필 (위키피플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현대시/고전시가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머 리 말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국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판에 붙여

2014년 개정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 ·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현대시/고전시가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또 시마다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를 두어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차 례

제1부 201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2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반어, 역설·모순 형용, 풍자, 표현 기법과 발상 24
유형모의1-1 길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4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1-2 꽃을 위한 서시 / 폭포 5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1-3 승무 / 국화 옆에서 5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1-4 어부가 6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1-5 우부가 6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1-6 사리화 / 구룸이 무심(無心)탄 말이 / 냇가의 해오랍아 6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1-7 못 잊어 / 오늘도 고향은 / 농무 / 뒥들에 동난지이 / 눈 / 벽모의 묘 70
시 해석력 높이기

2. 상징 77
유형모의2-1 아버지의 마음 / 가정(家庭) 9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2-2 까치밥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95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2-3 누룩 / 연탄 한 장 99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2-4 규원가(閨怨歌) 10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2-5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처용가 107
시 해석력 높이기•123
유형모의2-6 찬기파랑가 / 목마와 숙녀 / 간 110
시 해석력 높이기

3. 심상 114
유형모의3-1 길 /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12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3-2 강(江) 2 / 벼 12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3-3 만가(輓歌) -애(哀)소리 12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3-4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곡자(哭子) 13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3-5 십자가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전원(田園)에 남은 흥(興)을 136
시 해석력 높이기

4. 시어의 의미 · 기능과 생략된 시구 ····· 140
유형모의4-1 참깨를 털면서 / 도다리를 먹으며 159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4-2 목숨 / 나비의 여행 -아기의 방(房) 5 16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4-3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16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4-4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연행가(燕行歌) 17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4-5 깃발 / 종소리 / 면앙정가 175
시 해석력 높이기

5. 운율 ····· 178
유형모의5-1 타는 목마름으로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18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5-2 청산도 / 꽃덤불 18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5-3 농가월령가 19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5-4 보리타작 / 모내기노래 195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5-5 모란이 피기까지는 / 왕십리 / 남으로 창을 내겠소 / 청산별곡 198
시 해석력 높이기

6. 형상화 ····· 202
유형모의6-1 맹인 가수 부부 / 사평역에서 20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6-2 떠나가는 배 / 봉황수 21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6-3 용부가 216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6-4 안민가(安民歌) / 굼벙이 매암이 되어 22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6-5 바다와 나비 / 나비와 광장 / 등고(登高) 223
시 해석력 높이기

7. 시적 화자의 정서 · 태도 · 의도 ····· 227
유형모의7-1 나의 가난은 / 설날 아침에 25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7-2 눈물 / 은수저 26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7-3 누항사 265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7-4 유산가 27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7-5 찬기파랑가 / 사모곡 27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7-6 사슴 / 오랑캐꽃 / 또 다른 고향 / 사령(死靈) 277
시 해석력 높이기

차 례

8. 비평 관점과 올바른 감상 ····· 282

유형모의8-1 개똥동과 장미 / 그 여름의 끝 306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8-2 타는 목마름으로 / 껍데기는 가라 31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8-3 봉선화가 31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8-4 정과정(鄭瓜亭) / 개야미 불개야미 31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8-5 광야 / 울릉도 / 성북동 비둘기 / 하우요(夏雨謠) 322
시 해석력 높이기

9. 표현상의 특징 ····· 328

유형모의9-1 휴전선(休戰線)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36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9-2 눈 / 가을의 기도 366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9-3 속미인곡 369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9-4 창 내고쟈 / 어이 못 오던가 / 나모도 바히돌도 37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9-5 혼몽 / 산촌에 밤이 드니 37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모의9-6 나의 침실로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380
시 해석력 높이기

제3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제1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머슴 대길이 / 섬진강1, 고공가 386
제2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귀천, 제비가 393
제3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바다와 나비 / 겨울 바다, 영립(詠笠) / 어부가(漁夫歌) 399
제4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 / 청포도, 면앙정가 406
제5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오렌지 / 연시(軟柿), 빈녀음 / 시집살이 노래 412
제6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작은 짐승 / 성탄제, 견회요 / 개야미 불개야미 420
제7회 종합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풍장1, 사미인곡 427

제4부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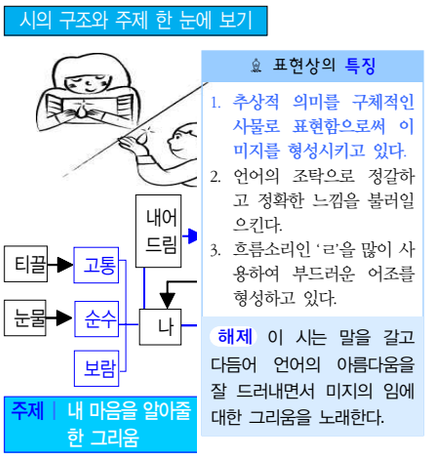
제1회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자작나무숲으로 가서(시) / 가을의 나상(수필) 436
제2회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고향(시) / 고향(소설) 442
제3회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여우난 골족(시) / 산촌 여정(수필) 449
제4회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상행 / 하급반 교과서 / 아리랑 타령(현대 / 근대시) 455
제5회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오월 / 춘설 / 성산별곡(현대시 / 고전시가) 462

제5부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 470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쑤우우우우우욱 올라갑니다.

가. 모든 시의 해설



1.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시의 구조와 주제를 그림과 도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표현상의 특징

각 시의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수능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태로 밝혀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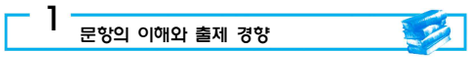
3. 시 해석력 높이기

시구 자체를 이용하여 내재적으로 시를 풀이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제1부 201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 최근 연도의 수능 문제를 싣고 해설하였으며 그 유형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꼭 해설까지 잘 읽어 봅시다.

다.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기출 수능 문항에서 역추론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 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있다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 · 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라. 제3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현대시, 고전시가의 신경향 · 고난도 문항을 대폭 수록하여 앞에서 배운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제4부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여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제5부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제를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풀이하여 방법은있다를 외우지 않아도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명별 찾아보기

가나다순

현대시

ㄱ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302p
가을의 기도, 김현승 339, 366p
가정, 박목월 91p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89p
간, 윤동주 112p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12p
강 2, 박두진 124p
개봉동과 장미, 오규원 306p
겨울 바다, 김남조 399p
고고, 김종길 355p
고사, 조지훈 330p
고풍, 신석초 328p
고향, 정지용 436p
고향 앞에서, 오장환 292p
광야, 이육사 322p
교목, 이육사 228p
구두 한 켤레의 시, 곽재구 298p
구두, 송찬호 285p
구름의 파수병, 김수영 238p
구성동, 정지용 229p
국화 옆에서, 서정주 57, 78p
귀뚜라미, 이원섭 337p
귀천, 천상병 393p
귀촉도, 서정주 88p
그 나무, 김명인 39p
그 여름의 끝, 이성복 306p
그의 반, 정지용 335p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사람, 신동엽 256p
길, 김기림 120p
길, 김소월 48p
깃발, 유치환 175p
까치밥, 이성부 95p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232, 311p
꽃, 이육사 157p
꽃덤불, 신석정 187p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52, 414p

ㄴ

나그네, 박목월 88p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84p
나뭇잎 하나, 김광규 352p
나비와 광장, 김규동 223p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 5, 정한모 164p
나의 가난은, 천상병 258p
나의 침실로, 이상화 380p
낙타, 이한직 422p
낙화, 이영도 322p
낙화, 이형기 347p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 김종한 406p
낡은 집, 이용악 249p
낡은 집, 최두석 292p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137p
남으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199, 203p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84p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82p
농무, 신경림 71p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95p
누룩, 이성부 99p
눈, 김수영 73, 366p
눈물, 김현승 262p
눈이 내리느니, 김동환 458p
님의 침묵, 한용운 352p

ㄷ

당신의 무덤가에, 도종환 328p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160p
들길에 서서, 신석정 213, 354p
떠나가는 배, 박용철 212p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유치환 447p
또 다른 고향, 윤동주 279p

ㅁ

마음의 고향 6– 초설, 이시영 349p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208p
머슴 대길이, 고은 386p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198p
모촌, 오장환 335p
목계 장터, 신경림 338p
목련이 봄비에게, 장성수 331p
목마와 숙녀, 박인환 111p
목숨, 신동집 163p
못 잊어, 김소월 70p
묘비명, 김광규 12p

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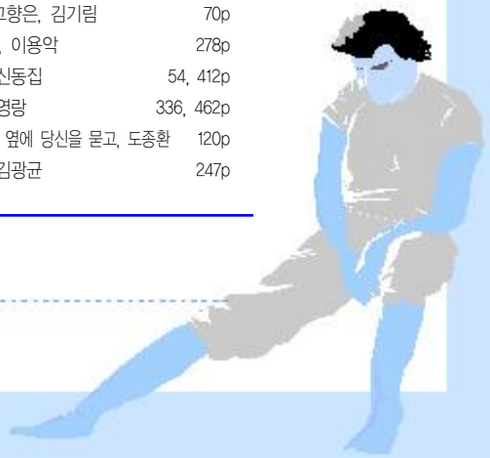
바다와 나비, 김기림 223, 399p
바위, 유치환 231p
벼, 이성부 125p
벽공, 이희승 334p
벽모의 묘, 황석우 74p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179p
봄은, 신동엽 136, 229p
봉황수, 조지훈 212p
불국사, 박목월 330p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381p
뻔디기, 서정주 26p

ㅅ

사랑, 김수영 340p
사령, 김수영 247, 280p
사슴, 노천명 277, 378p
사평 역에서, 곽재구 208, 345p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350p
산, 김광섭 205p
산 · 9, 김광림 415p
산도화 I , 박목월 114, 234p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282p
살구꽃, 김억 180p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348p
상행, 김광규 455p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35p
서시, 윤동주 87, 235p
석문, 조지훈 256p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39p
설날 아침에, 김종길 258p
섬진강1, 김용택 387p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323p
성에꽃, 최두석 285p
성탄제, 김종길 421p
승무, 조지훈 57, 153p
시다의 꿈, 박노해 284p
십자가, 윤동주 80, 136p

ㅇ

아니오, 신동엽 339p
아리랑 타령, 작가 미상 456p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90p
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148p
엄마 걱정, 기형도 359p
여승, 백석 336p
여우난 곬족, 백석 449p
연시, 박용래 413p
연탄 한 장, 안도현 99, 283p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70p
오랑캐꽃, 이용악 278p
오렌지, 신동집 54, 412p
오월, 김영랑 336, 462p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 120p
와사등, 김광균 247p



가나다순

작품명별 찾아보기

왕십리, 김소월 198p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서정주 82p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85p
울릉도, 유치환 322p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427p
유리창1, 정지용 45p
윤사월, 박목월 203p
은수저, 김광균 262p
이별가, 박목월 304p
인동차, 정지용 356p

ㅈ

자수, 허영자 417p
자야곡, 이육사 118p
자작나무숲으로 가서, 고은 443p
자화상, 윤동주 300p
작은 짐승, 신석정 420p
절정, 이육사 334p
정념의 기, 김남조 333p
조국, 정완영 331p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357p
조찬, 정지용 343p
종달새, 박남수 332p
종소리, 박남수 175p
즐거운 편지, 황동규 43, 341p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41, 285p
진달래꽃, 김소월 181p

ㅊ

찬송, 한용운 255p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159p
청노루, 박목월 341p
청산도, 박두진 187, 357p
청포도, 이육사 406p
추억에서, 박재삼 358p
춘설, 정지용 402p
춘향 유문— 춘향의 말3, 서정주 312p

ㅌ~ㅍ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183, 310p
통박, 박노해 236p
파초우, 조지훈 315p
폭포, 김수영 348p
폭포, 이형기 52p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240p
풍란, 이병기 18p
풍장, 이한직 429p
풍장1, 황동규 427p

ㅎ

하급반 교과서, 김명수 456p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184, 362p
해바라기의 비명 - 청년 화가 L을위하여, 함형수 393p
향수, 정지용 337p
황혼, 이육사 287p
휴전선, 박봉우 228, 362p

A~Z

The Last Train, 오장환 143p

고전 시가

ㄱ~ㅎ

가시리, 작가 미상 223p
강설, 유종원 360p
강촌, 두보 206p
강호사시가, 맹사성 290p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가 미상 333p
개야미 불개야미, 작가 미상 318, 423p
견회요, 윤선도 423p
고공가, 허전 389p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37p
고산구곡가, 이이 360p
곡자, 허난설헌 132p
공무도하가, 백수광부의 처 80, 107p
관동별곡, 정철 150p
구룸이 무심탄 말이, 이존오 67p
굼벙이 매암이 되어, 작가 미상 220p
규원가, 허난설헌 104p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작가 미상 373p
냇가의 해오랍아, 신흠 67p
농가월령가, 정학유 191p
누항사, 박인로 265p
뒥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가 미상 72p
도산십이곡, 이황 33, 340p
독자왕유희유오영, 권섭 296p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409p
등고, 두보 224p
만가 -애소리, 작가 미상 128p
만분가, 조위 155p
면앙정가, 송순 42, 176, 408p
모내기노래, 작가 미상 195p
모죽지랑가, 득오 132p
보리타작, 정약용 195p
봉선화가, 작가 미상 314p
북찬가, 이광명 155p
북창이 맑다커늘, 임제 35p
비가, 이정환 17p
빈녀음, 허난설헌 416p
사리화, 이제현 67p
사모곡, 작가 미상 273p
사미인곡, 정철 46, 430p
산촌에 밤이 드니, 천금 377p
상사곡, 박인로 242p
상춘곡, 정극인 245p
성산별곡, 정철 244, 369p
속미인곡, 정철 252, 412p
시집살이 노래, 작가 미상 218, 416p
안민가, 충담사 220p
야청도의성, 양태사 171p
어부가, 이현보 61, 402p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정철 37p
어이 못 오던가, 작가 미상 373p
연행가, 홍순학 146, 171p
영립, 김병연 402p
옛날 석가모니불이, 일연 47p
용부가, 작가 미상 216p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290p
우부가, 작가 미상 64p
유산가, 작가 미상 270, 361p
율리유곡, 김광욱 246p
이런들 엇더ᄒᆞ며, 이방원 230p
일동장유가, 김인겸 168p
전원에 남은 흥을, 김천택 138p
정과정, 정서 318, 424p
제망매가, 월명사 303p
제비가, 작가 미상 396p
찬기파랑가, 충담사 110, 273p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작가 미상 373p
처용가, 처용 107p
천만리 머나먼 길히, 왕방연 152p
청산별곡, 작가 미상 158, 200p
청초 우거진 골에, 임제 152p
춘면곡, 작자 미상 353p
하우요, 윤선도 325p
한거십팔곡, 권호문 248p
한숨아 세한숨아, 작가 미상 233p
혼몽, 이옥봉 377p
흥망이 유수ᄒᆞ니, 원천석 294p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2018 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현대시 · 고전 시가 해석법

1. 현대시와 고전 시가는 주관적인 글이므로 서정적 자아가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왜 그렇듯이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핀 다음 지엽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심 제재에 대하여 '어떠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가를 파악해 본다.
4.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 본다.
5. 표현상의 특징(운율, 표현 기법, 어조, 화자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가 알아본다.
6. 시의 구조(선경후정, 수미상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기승전결, 기서결, 연상적 구성, 열거식, 인과적 구성 등)가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7. 사용된 시어의 특징과 관습적· 원형적 상징 의미를 알아본 후 이들의 의미가 문맥에서 알맞은가 생각해 본다.

Œ 2018학년도 수능 문제와 해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나 → 노래 (화자의 분신)

주제 | 부정적 현실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새로운 세계로 보내고 싶은 나의 마음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에 화자의 정신을 이입시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3.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인 시어(강, 사막)로 형상화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화자의 분신인 노래에 암울한 현실에 죽음을 불사하는 태도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묘비명, 김광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문학(시, 소설), 역사 정신적 가치 ↔ 돈, 높은 자리 물질적 가치

주제 | 물질적 가치가 삶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일체의 정신적 가치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비판

가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표현상의 특징

1.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는 소재를 대조시켜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2. 물질적 가치에 아부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3. 반어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물질적 가치가 삶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일체의 정신적 가치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A]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항 분 석 두 시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의 시적 대상은 '노래'인데 노래에 대해 시적 화자는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라는 구절과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라는 구절에서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고 (나)의 시적 대상은 '묘비'인데 시적 화자는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 이 묘비는 살아 남아'라는 구절에서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오답 바루기 ① (가), (나) 둘 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② (가)에서는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라는 구절이 반복되었으나 (나)에서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 없다. ④ (가)에서는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 등의 구절에서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등의 구절은 가정을 통한 개념적인 제시여서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⑤ (나)는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등의 구절에서 반어법을 구사하고 있으나 (가)에는 없다.

✔ 해 답 ③

21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비평 관점으로 시구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란 구절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될 수 없어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답 비루기 ①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이란 구절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②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은 죽음의 공간으로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라는 구절과 관련되어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③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란 구절은 노래로 형상화된 화자의 분신이 죽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드러낸다. 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라는 구절은 밤은 화자의 추억을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로 사실적 현실이 될 수 없어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낸다고 볼 수 있다.

✓ 해답 ④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항 분 석 제시된 비평 관점으로 시구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삶은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는 구절에 드러난 시인의 삶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다.

● 오답 바루기 ①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라는 구절을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본다면 노래는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서 죽음의 공간에라도 가야하는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시적 화자의 분신인 노래를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본다면 '노래'는 시가 죽음을 불사하고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낸다. ③ '묘비명'은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대조적인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묘비명'은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 해 답 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비가, 이정환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뵌 듯ᄒᆞ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ᄒᆞ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ᄒᆞᆫ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ᄒᆞᆫ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ᄒᆞᆯ*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발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ᄒᆞ시도다 <제7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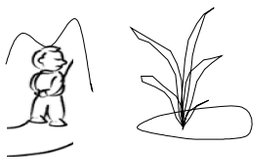
구렁에 났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긔 아니 조흘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ᄒᆞ야 시름겨워 ᄒᆞ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갓ᄒᆞ야 갈 길 몰라 ᄒᆞ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요양** : 청나라의 심양.
* **학가** :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ᄒᆞᆯ**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탐.
* **성려** : 임금의 염려.
* **검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검불 (화자의 처지) ◀▶ 풀 (선망의 대상)

주제 | 세자에 대한 그리움의 정과 화친에 대한 유감

표현상의 특징

1. 상반된 인물을 대조시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국치(國恥)의 비분강개를 꾸밈없는 직선적인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해제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통분히 여겨 지은 연시조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에 대한 그리움의 정과 화친에 대한 유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수필 이해력 높이기

㉯풍란, 이병기

주제 :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해제 : 이 수필은 난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을 인간적인 면모에 견주면서 화자의 정신적 지향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섶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매,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곽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았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A]
- 잎이 빳빳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 청량(淸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간죽하수문주인 :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뜻.
*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누추한 집.

작품명과 작가
[A]풍란, 이병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난초
높고 조촐한 기품과 향기

주제 |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표현상의 특징
1. 묘사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2. 대상의 정신적 가치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을 묘사와 직설적인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와 수필에 드러난 화자의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구절을 통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비루기 ② (가)에는 '신고(辛苦)ᄒᆞᆫ 화친(和親)' 등의 구절을 통해 시대적 고난이 표현되어 있으나 이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나)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를 드러낸 구절은 없다. ④ (나)는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등의 구절에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 둘 다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은 없다.

✓ 해답 ①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와 수필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고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갓ᄒᆞ야 갈 길 몰라 ᄒᆞ노라'라는 구절을 통해 어디로 가야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바루기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하고 '반갑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ᄒᆞ노라'라는 구절을 통해 박제상과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갑자기 8 · 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섶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구절에서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라고 표현함으로써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해 답 ③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항 분 석 시의 두 소재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화자는 ㉠에 대해 '우리는 너희만 못ᄒᆞ야(못하여) 시름겨워 ᄒᆞ노라'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에 대해 '갓ᄒᆞ야(같아서) 갈 길 몰라 ᄒᆞ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하고 있다.

● 오답 바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과 ㉡에 관련된 구절이 드러내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 해 답 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ᄒᆞᆫ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봄비는 풀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풀은 시적 화자와 대조되는 처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며 화자는 '시름겨워 ᄒᆞ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근심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 또 '달 발근 밤'은 임금의 염려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다.

오답 바루기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은 학가 선객 즉 잡혀간 세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반갑다', '슬허ᄒᆞ노라' 등의 구절을 통해 그리운 사람을 꿈에 본 반가움과 모셔 오지 못하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의 애석함을 '슬프다'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ᄒᆞᆫ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임금의 염려를 내세워 염려하고 있다.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것을 '갈 길 몰라 ᄒᆞ노라'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② [A]의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화려 광활'은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놓은 방과 관련된 판단이고 '옥 같은 뿌리'는 난과 관련된 판단이어서 서로 대조적인 의미가 된다.

오답 바루기 ② '풍란은 곁에 두었다.'란 이유를 수필의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시에서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으로 변용되었다. ③ '아는 이'의 정신과 수필에서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라는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정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④ 수필의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시적 정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라는 표현에서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 해답 ①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시에서는 사물을 더 명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꾸미는 기교나 사고 방식으로 반어, 모순 형용·역설, 풍자, 비유 등의 문학적 기교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것을 구별하여 찾아내거나 그 효과와 거기에 담긴 의미나, 필자의 의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반어(反語, irony)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인상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 문정희, 겨울 일기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무 일도 못하고 가슴 아프게 지냈다'는 의미의 반어이다.

예문보기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희고 아름다우며'는 하얗게 병든 모습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고생 속에 어렵게 자라'를 의미하는 반어이다.

예문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는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2) 역설·모순 형용

①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대로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죄도 없이 죄지어서'는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일면 부정한 권력에 누명을 써서 죄를 지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등은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실제로 임의 목소리만 들리거나 임의 얼굴만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農舞)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칫 반어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춤이란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 김수영, 현대식 교량

② 모순 형용(矛盾 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竝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나스탤지아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못 되고 아우성이면 소리가 커야 하므로 진술의 앞부분이 성립되면 뒷부분이 성립되지 않고 뒷부분이 성립되면 앞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순 형용이다.

예문보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I

예문보기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예문보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3) 풍자(諷刺, satire)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숨겨 두는 진술 방식인데, 주로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예문보기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고 살리우듯이
그렇게라도 산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리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 못도 그만 빼자는 것이야.
그러고는 반창고나 쬐금씩 그 자리에 부치고
뻔디기 니야까나 끌어 달라는 것이야.
'삐억 삐어 뻔디기, 한 봉지에 십원, 십원, 비 오는 날 뻔디기는 더욱 맛이 좋습네.'
그것이나 겨우 끌어 달라는 것이야.

작품명과 작가
뻔디기,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풍자

그것도 우리한테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 서정주, 뻔디기

희망이나 꿈을 갖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뻔데기니야까나 끌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풍자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1. 비속어를 써서 부정적 현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흉내 내어 표현함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3.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비속어를 써 가며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예문보기

넥타이를 한 흰 식인종은
니그로의 요리가 칠면조보다도 좋답니다.
살갗을 희게하는 검은 고기의 위력
의사 -콜베-르씨의 처방입니다.
-헬매트를 쓴 피서객들은
난잡한 전쟁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슲은 독창가인 심판의 호각 소리
너무 흥분하였으므로
내복만 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이태리에서는
설사제는 일체 금물이랍니다. — 김기림, 시민 행렬

제 1~4 행에서는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제 5~7 행에서는 전쟁을, 제 8~11행에서는 파씨스트의 광분을 풍자하고 있다.

(4) 비유법

① **개념**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제시하는 방법

㉠ **원관념[주지(主旨)]** :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물이나 개념

㉡ **보조 관념[매재(媒材)]** : 원관념을 실어 나르는 구실을 하는 보조적인 사물이나 관념

- **주관적 변용(사이비 진술)** - 비유와 상징도 일종의 거짓 진술(사이비 진술)이며, 이 외에도 사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비 진술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거짓이지만 시의 문맥 전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문보기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 작가 미상, 민요

세월은 묶거나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서정적 자아의 의지로 변용하여 동여 맨다고 표현하고 있다.

- 비유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진부한 비유를 사비유(死譬喩)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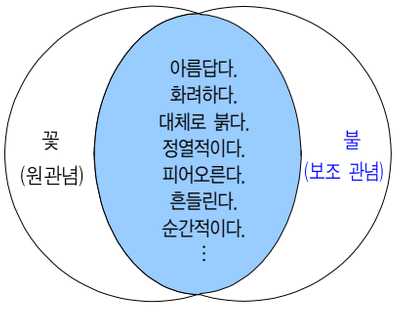
예문보기

심금(心琴)을 울린다.

심금은 원래 마음을 울리는 거문고란 뜻이지만 마음을 비유하는 사비유에 해당한다.

•원관념은 직접 제시되기도 하지만 색채, 모양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되기도 함.

<비유의 성립 과정>



대상을 서로 유추(類推)하거나, 대상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를 성립시킨다.

② 기능

㉠ **의미 확충** : 전달의 측면에서, 원관념만으로는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의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 **형상화** : 비유를 통해 사물 또는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곧 심상을 이룰 수 있다.

㉢ **개성 표출** : 같거나 비슷한 비유의 반복 사용은 특정 작가나 문학 양식의 특징을 드러낸다.

③ **종류** : 두 사물(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직접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 **직유법** : '~처럼, ~같이, ~인 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직접 밝히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예문보기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신경림, 농무

원관념 :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꺽정이　공통점 : 울부짖는다.
원관념 : 또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서림이　공통점 : 해해댄다.

㉡ **은유법** : 공통점을 숨기어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숨겨지므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보기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 — 서정주, 광화문

원관념 : 광화문 보조 관념 : 종교 공통점 : 사람들이 떠받든다, 숭고하게 여긴다.

ⓒ 의인법 : 추상적 개념이나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예문보기

시간의 발은
소리나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 강규형, 쓰러지는 잔

시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 감정 이입 : 시적 화자의 감정을 특정 사물(대상)에 집어넣어, 그 사물의 속성으로 체험하는 방법. 의인화의 한 방편.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예문보기

귀또리 져 귀또리 어여쁘다 저 귀또리
어인 귀또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예어 사창에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리는 저 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고시조

귀또리가 즐겁게도 울 수 있고 슬프게도 울 수 있을 것인데 위 시에서는 절절이 슬픈 소리로 혼자 운다고 표현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객관적 상관물 : 감정을 객관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사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문보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위 시에서 '나룻배'는 행인을 강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는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보기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위 시에서 '새'는 귀촉도를 가리키며 귀촉도는 자규, 망제, 두혼, 두우, 두백 등으로도 불리는데 중국 촉(蜀)나라 사람인 망제(望帝)의 죽은 넋이 두견이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객관적으로 슬프게 우는 새의 대명사로 되어 있다.

예문보기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

위 시에서 '기(旗)'는 때로 흔들리기고 하고 때로 가만히 있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때로 갈등하고 때로 평온을 되찾는 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낸다.

ⓔ **환유법** : 사물의 속성으로 그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속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예문보기

송장이
수백만(數百萬)
붉은 피가
삼천리. — 송욱, 해인연가(海印戀歌)7

삼천리는 한반도나 한국의 전국토를 가리킨다.

ⓜ **제유법** :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부분적 특징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대유법은 환유법와 제유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수사법이다.

예문보기

신이여 우리 아버지 당신 곁에 오거들랑
그에게 잘 드는 낫과 삽 한 자루씩 주세요. — 이유경, 아버지의 흙2

'낫과 삽'은 농기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 **풍유법** : 암시적, 풍자적 비유 방법으로 교훈성이 강하며, 가볍게 공격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는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희망을 의미한다.

ⓢ **중의법** : 하나의 말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것인들 긔 뉘 따해 났다니. —성삼문, 고시조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수양 대군'을 뜻하고, '채미'에서 '미'는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5) 강조법

① **개념** :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과장법** :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들어낸다.

예문보기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 고은, 성묘

슬퍼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눈에 피(선지)가 고인다고 과장하고 있다.

㉡ **영탄법** :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단장

㉢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문장 등을 거듭 써서 뜻을 강조법이다.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점층법** : 점점 힘 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 써서 글의 힘을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나열하여 약화시키는 강조법이다. 독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문보기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뵀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오리. — 김상용, 고시조

㉤ **대조법** : 상반·상대되는 어구 또는 사상(事象)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보이는 강조법이다. 대상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중략)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흰나비와 새파란 초승달의 색상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현재법** :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을 현재 눈앞의 일처럼 나타내어 실감을 돋우는 강조법이다. 사실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당나라의 현종이 춤을 춘다.
수왕이 미쳐서 춤을 춘다.
양귀비가 알몸으로
춤을 춘다. – 박성룡, 양귀비꽃

ⓘ **억양법** : 처음엔 치켜 올렸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이와 거꾸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두 사실을 명백하게 대조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손아,
조국아 나의 폐허여 –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금도끼와 은도끼로 잘 다듬는다고 치켜 올렸지만 오히려 조국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로 억양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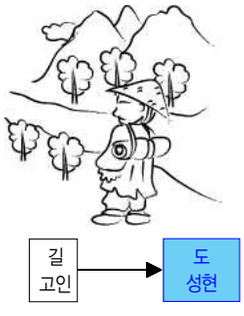
ⓞ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뒷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강조법이다.

예문보기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던 아니 예고 어이리. –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명과 작가
도산십이곡, 이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학문에의 정진

표현상의 특징

1.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2. 상징어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면서 길을 상징적 의미로 활용해 학문에의 정진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6) 변화법

① **개념** : 글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대구법** :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하여서 병행의 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변화법으로서,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켜 강한 인상을 준다.

예문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도치법** : 문법이나 논리상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변화법으로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는. – 김현승, 절대 고독

㉢ **생략법** : 말의 일부를 감추는 변화법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긴다.

예문보기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네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야 알련만…….
– 이상화, 나의 침실로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너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 **설의법** :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변화법으로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예문보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이육사, 광야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7) 언어 유희(言語遊戱, pun)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 말장난을 뜻한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치정(癡情) 같은 정치가
상식(常識)이 병인 양하여
포주나 아내나 빛과 살붙이와
*현*금이 *실현*하는 *현실* 앞에서
다달은 낭떠러지! — 송욱, 하여지향

음절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재미와 함께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북창(北窓)이 맑다커늘 우장(雨裝)이 업시 길을 나니
산(山)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 비 맛잣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 임제

찬비는 한우(寒雨)라는 기생을 나타내는데 기생의 이름에 들어있는 한(寒)의 의미를 이용해 '얼어 잘까'라고 표현하고 있어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임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찬비 → 한우 → 연정 고백

주제 | 비에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 고백

표현상의 특징

1.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찬 비에서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을 흥미롭게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3 방법은 있다

표현 기법 및 발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반어는 언어적으로는 아무 모순이 없으나 상황적으로 상반된 표현인가로 판단한다.
2. 모순 형용은 앞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란히 놓였는가로 판단한다.
3. 역설은 언어 자체의 모순보다도 상황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면에서 진실된 것인가로 판단한다.
4. 풍자는 표현한 대상이나 의도를 축소시켜 표현하므로 이를 확대시켜 볼 때 사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
5. 언어 유희는 다음을 확인해 본다.
   - 음절이 도치되는 말로 짝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핀다.
   - 부분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제시된 말을 앞뒤의 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된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보조 관념이 의미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7. 표현된 시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선명한 인상, 효과적 전달, 강조, 새로운 관심 환기, 여운 등)를 생각해 본다.
8.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에는 대구 등 문맥에 의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아본다.
9. 수사법의 종류를 익혀 주어진 시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10. 표현하고자 한 실체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비유법
11. 독자의 인상을 깊게 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강조법
12. 단순하거나 무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절이나 시행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변화법
13. 사물을 어떤 형태로 비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14. 사물을 주관적 변용은 대상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활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뎌리 ᄒᆞ야 어이 ᄒᆞᆯ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ᄂᆞ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ᄲᅳ릴 ᄲᅮᆫ이로다
비 ᄉᆡ여 셔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뉘라셔 곳쳐 쏠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ᄎᆞᆫ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ᄅᆞ며 **논의**를 눌라 ᄒᆞᆯ고
낫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ᄀᆞᆺ튼 얼굴리 편ᄒᆞ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ᄒᆞᆯ셔이고
혬 업는 죵의 일은 뭇도 아니 ᄒᆞ려니와
도로혀 혜여ᄒᆞ니 마누라 타시로다
㉢ᄂᆡ 주인 외다 ᄒᆞ기 죵의 죄 만컨마ᄂᆞᆫ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ᄒᆞ야 사뢰나이다
㉣새끼 ᄭᅩ기 마르시고 내 말ᄉᆞᆷ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ᄒᆞ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동량재 = 뛰어난 인재(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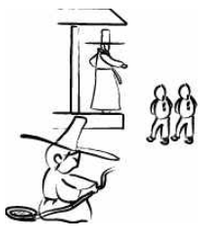
주제 |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

표현상의 특징
1. 유추적 사고를 통해 동량재를 뛰어난 인재로 비유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마누라 : 임금
종 : 하급 신하
어른 종 : 화자이자 고위 신하
가도 : 국가의 도리
→ 우회적 표현 풍자성 강화

주제 |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안

표현상의 특징

1 국가를 집으로 유추하여 표현함으로써 우회성과 풍자성을 높이고 있다.
2 연쇄와 반복을 통해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3.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국가를 집에 비유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의 표현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 연쇄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강한 리듬감을 형성시키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바루기 ② (가)의 '어와 동량재(棟梁材)ᄅᆞᆯ 뎌리 ᄒᆞ야 어이 ᄒᆞᆯ고'라는 구절에서 'ᄒᆞᆯ고'는 '할까'란 의미로 설의법이다. 이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살 ᄎᆞᆫ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라는 구절에 동일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량재→인재, 집→국가, 목수→인재 관리자(임금 등) 등은 은유법이다. 또 (나)에서는 '옥 ᄀᆞᆺ튼 얼굴리 편ᄒᆞ실 적 몇 날이리'라는 구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였다. ④ (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제리 아낙네들 –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메 개까지 덩달아 짖어 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작품명과 작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선제리 아낙네들의 의좋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1.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켜 운율감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법을 구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가난하여도 의좋게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그 나무 –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B]

작품명과 작가
㉯그 나무, 김명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늦된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 의문형 종결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상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0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한 두 구절의 표현 기법을 적절하게 대비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는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키고 있지만 [B]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가 없다.

오답 바루기 ① [A]에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만 있지 대조는 없다. ③ [B]와 [A] 둘 다 공감각적 표현은 없다. ④ [A]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B]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⑤ [A]에서 '까 여', '다 여' 등은 사람 말의 종결 어미를 따온 것으로 의성어가 아니며 [B]에서도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러 산 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A]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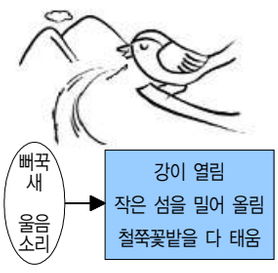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

* 길뜬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작품명과 작가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뻐꾹새 울음소리의 실체와 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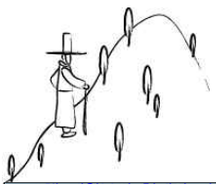
표현상의 특징
1. 중심 시적 대상이 다른 대상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다.

해제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는 이 시는 뻐꾹새 울음소리가 끼친 영향을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면앙정가, 송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8행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

9행~끝행 면앙정의 정경

주제 |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며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

표현상의 특징

1.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4음보를 반복해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자연을 소재로 안빈낙도하는 삶의 행복감과 자부심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 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히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
은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B]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긑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0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문항분석 두 시구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에서는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활유법이나 의인법을 구사하여 동적 미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B]에서는 물을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이란 구절 등을 통해 동적 미감을 시각적으로 직유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펴졌거든'라는 구절에서는 모래밭을 직유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②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라는 구절에서 보듯 강한 음보율을 드러내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③ 둘 다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둘 다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둘 다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즐거운 편지, 황동규

즐거운 편지

〈 I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II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변함없이 기다리는 사랑의 즐거움

표현상의 특징

1. 편지투의 어조로 내적 고백을 털어놓고 있다.
2. 시적 화자 자신의 행위를 반어적으로 평가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두 연으로 된 산문시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의 태도를 세월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사소하다고 자칭하는 표현에서 겸손한 우리말 어법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04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 I 〉과 유사한 것은?

①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느님 거 같으셨네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더면
아무 하늘도 안 보였으리

②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③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④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비(碑)ㅅ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서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시적 화자는 '내 그대를 생각함은 ~ 사소한 일일 것이나'라든지,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일은 나로서는 뜨거운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소함이란 표현은 본래 의도와는 상반된 의미이다. 따라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②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임이 어느 날 찾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으시는 날 그때까지 못잊어 하고 있겠다는 것은 결국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바루기 ①은 가정법을 통하여 임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③은 종소리와 자신을 동실시(의인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는 자신·자신의 백골의 대립을 통하여 절대적·도덕적 이상의 추구를 염원하고 있으며 ⑤는 명령법을 통하여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05 ㉠과 같은 표현 방법을 구사한 예가 아닌 것은?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③ 이제 봄날은 가고
황홀한 재앙의 시간도
오래지 않으리

④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⑤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을 꽂고 돌아들 간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인 모순 형용[역설]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외로운'과 '황홀한'이 심사를 꾸미고 있는데, 외로우면 황홀할 수 없고 황홀하면 외로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이므로 언어 자체가 모순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순 형용[역설]이다. ⑤에서는 애정의 핀이라는 구절에서 은유법만 사용되었다

오답 바루기 ①의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황홀한 재앙'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외로운 눈부심'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⑤

작품명과 작가
유리창1, 정지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식을 잃은 애절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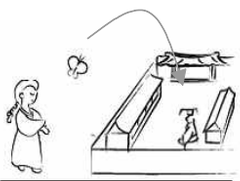
1.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대상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의 구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제시함(감정의 대위법)으로써 감정을 절제한 느낌을 자아낸다.
4. 호흡을 점점 길게 하는 점층적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유리창에 비치는 죽은 자식의 영상을 산새와 별로 상징하여 드러내면서 애끊는 마음을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 대립적 언어를 병치하여 오히려 차다고 느낄 만큼 차분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사미인곡,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

주제 |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임에 대한 사랑

표현상의 특징

1.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적절한 비유로 시적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4. 4음보의 율격을 반복하여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제시된 시가는 사미인곡의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축원과 잠 못 이루는 사랑, 죽어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좇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임은 임금이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곤(乾坤)이 폐ᄉᆡᆨ(閉塞)ᄒᆞ야 ᄇᆡᆨ셜(白雪)이 ᄒᆞᆫ 비친 제 사ᄅᆞᆷ은ᄀ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쇼샹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너 므ᄉᆞᆷ ᄒᆞ리.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모쳠(茅簷)* 비쵠 ᄒᆡ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샹(紅裳)을 니믜ᄎᆞ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ᄐᆞᆨ(脩竹)*의 헴가림도 하도 할샤, 댜ᄅᆞᆫ ᄒᆡ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쳥등(靑燈) 거른 겻ᄐᆡ 뎐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ᄭᅮᆷ의나 님을 보려 ᄐᆡᆨ 밧고 비겨시니, 앙금(鴦衾)도 ᄎᆞ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샐고.

하ᄅᆞ도 열두 째 ᄒᆞᆫ ᄃᆞᆯ도 설흔 날, 져근덧 ᄉᆡᆼ각 마라. 이 시ᄅᆞᆷ 닛쟈 ᄒᆞ니, ᄆᆞᄋᆞᆷ의 ᄆᆡ쳐 이셔 골슈(骨髓)의 ᄉᆡᆺ텨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ᄒᆞ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ᄃᆡ 죡죡 안니다가, 향므든 ᄂᆞᆯ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ᄒᆞ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 쇼샹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 옥누(玉樓) : 옥황 상제가 있는 곳
* 모쳠(茅簷) : 초가집 처마
* 취슈(翠袖) : 푸른 소매
* 슈ᄐᆞᆨ(脩竹) : 긴 대나무
* 뎐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06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윗글에서 찾으면?

| 보 기 |

冬至(동지)ㅅᄃᆞᆯ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옥누(玉樓)
② 양츈(陽春)
③ 홍샹(紅裳)
④ 앙금(鴦衾)
⑤ 골슈(骨髓)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표현과 표현 기법상 유사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는 추상적 의미인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베어내고 이불 아래 보관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라는 표현은 따뜻한 봄을 구체적 사물화시켜 부쳐 내고 임 계신 데 쐬고자 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옥누의 원관념은 궁궐이므로 은유법이다. ③은 '붉은 치마'이므로 사실적 표현이다. ④는 원앙 금침의 준말로 원앙은 금슬이 좋다는 관습적 상징이며 금침은 베개와 이부자리이므로 사실적 표현이어서 주관적 변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는 뼛속이라는 말이므로 시름이 뼛속에까지 끼쳐 있다는 표현이므로 과장법이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涅槃)에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하네.

* 사라수 : 상록수의 일종
*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 : 부처님이 산다는 장엄한 세계

작품명과 작가
삼국유사, 일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연화장계관에 들어가기를 빎
↓
주제 | 죽은 자에 대한 축원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한시의 한 특징인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살리면서 죽은 이가 부처의 세계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다.

07 위 시와 표현의 방법이 유사한 것은?

①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②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기에
아름다운 목숨을 싣고 갔느냐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④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제시된 시에는 '옛날과 지금', '석가모니불과 그 같은 자', '열반과 연화계관장', '들었는데와 들어가려 하네'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하늘과 땅', '구름과 바람'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비루기 ①에서는 '바람'이 고난, 어려움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④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⑤에서는 당신이 '조국, 불법(佛法), 연인'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길,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가마귀 = 감정 이입
기러기 = 선망의 대상

주제 | 나그네의 비애와 정한

표현상의 특징

1. 3음보를 구사하여 강한 율격미를 드러낸다.
2. 기러기에 말하는 형식으로 대화 존재의 부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비애를 자연물에 기대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 길 –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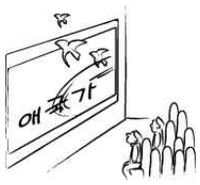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작품명과 작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반어 : 시대 상황 비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 반영〉

주제 | 암울한 현실적 삶에 대한 좌절감

표현상의 특징

1. 현실을 죽음과 절망, 초월해 보고 싶은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자유로운 새들과 시적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조해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3.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4.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등의 표현에서 반어법을 구사하여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토로하면서 피곤하고 역겨운 현실을 탈피한 좀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구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와 (나)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새로운 세계에, (나)의 화자는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가)의 화자는 길을, (나)의 화자는 애국가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③ (가)의 화자는 냉소적 어조로, (나)의 화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사회적 현실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⑤ (가)의 화자는 기러기를, (나)의 화자는 흰 새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소월에게서 '임'과의 '이별'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것으로, 그 이별의 상태가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주어 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소월의 시에서는 억누를 길 없는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된다.

① 임과 같은 '내 집'을 떠나 유랑하는 비애를 노래하고 있군.
② 임과 같은 '내 집'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군.
③ '산'은 '내 집'으로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해.
④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 되는군.
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란 표현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딱한 처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목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란 표현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이 암시되어 있다.
② 전체적으로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③ 2행의 '경청한다'란 표현은 강요된 애국심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④ 10행의 '이 세상 밖'은 또 다른 환멸의 공간을 의미한다.
⑤ 17행과 18행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현실 순응을 강요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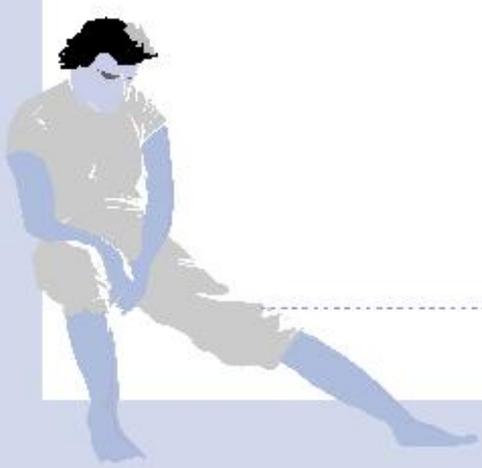
(가) 길, 김소월

시적 화자의 처지는 '나그네 집'이란 시어에 명백히 드러난다. 어디론가 여행이나 혹은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가 '울며 새었다'면 시적 화자도 밤새워 들었을 게다. 잠 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터니. 그렇구나. 떠도는 나그네가 무슨 근심에선가 밤새 슬퍼 잠 못 이루었다는 얘기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란 표현에 있다. 고향을 떠나온 상황이다. '차 가고 배 가는' 고향을 두고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옛가요에 나오는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신세'에 처한 자신의 딱한 상황 때문이리라.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일까 아니면 사회적 사정일까? 약간의 배경 지식만 동원해 본다면 일제 강점기하의 지독한 수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공중의 저 기러기를 불러대는 것은 새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또한 대화 상대의 부재를 나타내 고독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의 목표는 오락이다.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란 말을 듣는다면 기절할 노릇이리라. 반어의 섬뜩한 묘미를 활용해 강요된 의식에 대한 비판의 장을 열고 있다. '삼천리 화려 강산'도 당시의 현실으로 봐서는 반어적이며 대유적 표현이다. 화면에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절망 속에서는 새들의 비상도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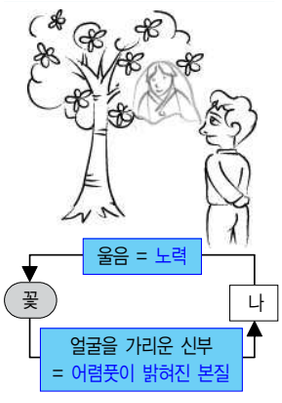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가사로 애국가는 끝이 나고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것도 '주저 앉는다'. 절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존재의 본질 인식에의 염원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2.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소망을 읊은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폭포, 이형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폭포를 통하여 느끼는 일상적 삶의 존재론적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

㉮ 꽃을 위한 서시 –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 폭포 – 이형기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그 위에 벼랑은 다시 솟는다.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을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나의 자랑은 자멸(自滅)이다.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표현상의 특징

1. 폭포를 의인화하여 그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2.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폭포의 이미지를 관념화하여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한계와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철학적인 작품이다.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 (나)의 화자는 직접 시적 대상이 된 것으로 상상하여 시상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소망을 이룬 기쁨을, (나)의 화자는 소망을 못 이룬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나)의 화자는 파괴된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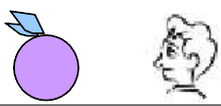
④ (가)의 화자는 추억 속의 시적 대상에 대하여, (나)의 화자는 현재 바라보고 있은 시적 대상에 대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과거의 상황을, (나)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오렌지, 신동집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사물로서의 오렌지와 관계 설정
↓
접근 가능한 존재로서의 오렌지
↓
파괴할 수 없는 본질로서의 오렌지
↓
오렌지의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
↓
오렌지의 본질의 추구 가능성

주제 |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추구

표현상의 특징

1.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2. '포들한, 찹잘한' 등의 시적 자유에 의한 표현으로 중심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오렌지라는 소재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져 그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02 (가)에서 발상을 얻어 다음 〈보기〉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할 때,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오렌지 – 신동집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잘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①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② 대상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③ 대상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⑤ 대상에 의지해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발상 및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②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 바라춤, 신석초

③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④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 떨어진다. – 폭포, 김수영

⑤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냐? – 네거리의 순이, 임화

(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라는 말에 우린 깜작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너 또한 대명사여서 궁금증은 증폭된다.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가지'와 '피었다 진다'란 말에서 우리는 너를 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손이 닿으면'은 꽃을 꺾는 행위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없다'란 말은 인식의 부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무명의 어둠'도 곧 무지의 의미로 쉽게 환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둠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리라. 그래서 '추억의 한 접시 불'도 노력이란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울음으로 시작하여 돌개바람과 '금(金)'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금은 가치 있는 것의 의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꽃을 얼굴을 가리운 신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윤곽을 파악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베일을 벗겨야 하는 과제는 남은 터다.

(나) 폭포, 이형기

이 시에서 '나'는 산이 아닌가란 위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것은 제목을 무시한 결과에 불과하다.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하며 고함지를 수 있는 화자란 바로 폭포이다. 산은 등장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주 속에 부르르 떨고 마침내 단말마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물줄기에겐 벼랑은 벼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수잠자리의 추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폭포의 비유로 풀 수밖에 없는 의미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2 억 년 묵은 이 칼자욱과 석탄기의 종말이 짝을 이루어 폭포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객관성을 얻는다.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란 구절에서 우린 역설을 읽어 낼 수 있다. 자멸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떨어져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떨어지자고 하는 것은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 가지 말고!'란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과도 뜻이 통한다. 복안은 잠자리의 눈처럼 여러 개의 눈이 하나의 눈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도 장수잠자리란 폭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곧 복안은 여러 개의 물방울이며, 그 무수한 수정체이며,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이기 때문이다.

'나의 등판을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는 물줄기 즉 좁은 의미의 폭포를 빛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넓은 의미의 폭포는 벼랑과 물줄기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의 폭포는 물줄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옳음을 입증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승무(僧舞) – 조지훈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작품명과 작가
㉮승무, 조지훈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인간 번뇌의 종교적 승화

표현상의 특징

1. '고깔, 머리, 볼', '소매, 외씨보선', '눈동자, 뺨, 손' 등 위에서 아래로 묘사하는 것을 반복하여 너울너울 춤을 추는 율동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외부 묘사에 치중하고 갈등은 암시적으로 드러낸 후 '별빛' 등의 이미지를 통해 내적 정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불교적인 시어와 '오/우'가 들어가는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우아한 멋을 살리고 있다.
4.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안정감, 통일감, 균형미를 구현하고 있다.
5. 유음 'ㄹ'을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해제 이 시는 인간적 번뇌를 별빛처럼 맑게 승화시켜 선적(禪的)인 정취와 분위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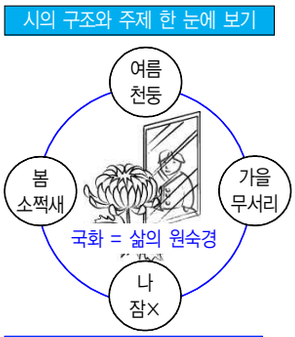
나 국화 옆에서 –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작품명과 작가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경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표현상의 특징

1. 민요조의 3음보를 반복하여 친근한 율격미를 형성하고 있다.
2.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가 형성되기까지의 비통과 불안과 방황과 온갖 시련을 국화가 피어나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사람에 대한, (나)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시적 대상이, (나)는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사람을 통해,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삶을 표출하고 있다.
④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나)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나타난 자연 현상에 대하여, (나)는 밝은 공간에서 나타난 사람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02 (가) 시를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면서 문학 작품을 고도의 형상적 언어로 조직된 자율적인 체계로 본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하며, 언어 표현의 방식과 작품의 내적인 짜임새를 중시한다.

① 춤의 동작과 대상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어.
② 지상적 이미지와 천상적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배치한 느낌이 들어.
③ 문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어휘들이 있어.
④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⑤ 갈등의 종교적 해결을 나타낸 것은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03 (나)에 대한 구체적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어구를 반복해 율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② '국화꽃'과 세 계절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거울'은 객관적 사실을 투영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④ '잠'이란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와 시적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소쩍새 소리나 천둥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4 ⓐ와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① 오호, 흰 눈이 내리느니, 보오얀 흰 눈이
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 눈이 내리느니, 김동환

②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드메 꽃같이 숨었느냐. – 그리움, 유치환

③ 아 내가 모르는 것을, / 내가 모르는 그 절망(絕望)은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는 심정이
왜 이처럼 가볍고 서글픈가. – 들길, 이형기

④ 매끄러운 무우를 혀끝으로 더듬으며 /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으며
마을을 가리던 키 큰 그림자 / 세상을 덮어버릴 때까지
나는 새파랗게 웃고 있다. – 일식, 이경교

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망한 / 이 황무한 전장에서
이름도 모를 꽃 한 송이 / 뉘의 위촉으로 피어났기에
상냥함을 발돋움하여 하늘과 맞섬이뇨. – 꽃, 박양균

(가) 승무, 조지훈

고깔의 모양을 한 마리 나비로 비유해 본 시적 화자의 시선은 고깔 속의 머리와 두 볼의 순으로 하강한다. '고와서 서러워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다시 시선은 배경으로 옮아가며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란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펼치는 소매의 끝자락이 하늘에 닿을 듯한 모습과 정중동의 발동작을 연상해 보자.

까만 눈동자에 까만 하늘 그리고 빛나는 별, 복사꽃 고운 뺨에서는 젊은 여승의 번뇌가 묻어날 듯도 한데 '번뇌는 별빛이라'며 이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후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첫연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율격과 안정감을 조율해 시를 끝맺고 있다.

(나) 국화 옆에서, 서정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것이 정말일까? 이런 의문으로 시를 해석하면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진술이 참이 되는 것은 시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울었다는 데 어떻게 운 것일까? 이것은 좋은 의문이다. 앞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을 지시어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묘미는 이런 점에서도 살아난다. 다시 '그렇게'는 어떻게?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독자가 들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름에는 천둥이 울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니 계절과 자연과 인간이 다 인연을 맺고 발생한다는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이 성립된다. 그러한 연기설은 화자의 인식에 의한 것이므로 시적 참이 되는 셈이다.

제3연은 다른 연과 달리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며 대상 자체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연이다. 누님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으로 인생의 격정을 다 겪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숙한 모습의 여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부가(漁夫歌) – 이현보

이 듕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夫)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놀 가는 줄를 안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ᄀᆞ렛ᄂᆞᆫ고
㉡강호애 월백(月白)ᄒᆞ거든 더옥 무심(無心)하얘라.

청하(靑荷)애 바블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께여
노적화총(蘆荻花叢)애 ᄇᆡ ᄆᆡ야 두고
㉢일반 청의미(淸意味)를 어늬 부니 아라실고.

산두(山頭)에 한운(閒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장안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쳔리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작품명과 작가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 생활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2 설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대립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며 사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장된 표현으로, 현실적 절망을 확대시키고 있다.
②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③ 풍자의 기법으로, 잘못된 사회상을 꼬집어 공격하고 있다.
④ 대조의 기법으로, 소망하는 삶의 양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⑤ 구체적 묘사를 통해, 지향하는 고향의 모습을 뚜렷이 그려내고 있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일엽편주(一葉扁舟)'라는 시어를 통해 어부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은 달이 밝다는 뜻의 시어 '월백月白)'을 통해 화자가 욕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맑고 깨끗한 삶이란 의미의 시어 '청의미(淸意味)'를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은 백색 이미지의 시어 '백구(白驅)'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삶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⑤ ㉤은 북쪽에 있는 대궐이라는 뜻의 시어 '북궐(北闕)'을 통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03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날마다 강가에서 고기 낚는데
낚시 무는 놈은 모두 잔챙이.
누가 알까, 저 <u>푸른 바닷물</u> 속에
배보다 더 큰 고기 있음을. – 김류

② 호미 메고 꽃 속에 들어가
김을 매고 저물녘에 돌아오네.
<u>맑은 물</u>이 발 씻기에 참 좋으니
샘이 숲속 돌틈에서 솟아나오네. – 강희맹

③ 봄 비 가늘어 방울 없더니
밤 되자 빗소리 귀에 들리네.
눈 녹아 <u>시냇물</u> 불어날 테고
파릇파릇 풀 싹도 돋아날 거야. – 정몽주

④ 동남으로 저 멀리 <u>푸른 바다</u> 바라보니
아침 안개 사라지고 붉은 해 일렁이네.
위아래가 어슴푸레 같은 색이 되었으니
모르겠네.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가. – 이승소

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u>흐르는 물</u>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전문 현대어역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다만 '나의 걱정이 아닌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라는 구절을 다소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아 나랏일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전문 현대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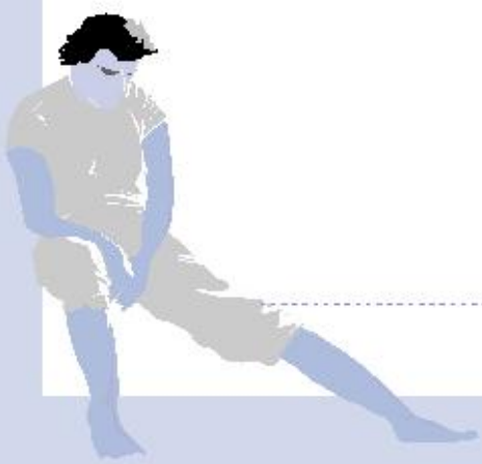
이 중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조그마한 쪽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인간 세사를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랴. –자연과 합일된 경지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는 얼마나 가려 있는가.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무욕의 강촌 생활

푸른 연잎에다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이 우거진 떨기에 배를 매어두니,
이런 일상적인 맑은 재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강호에서의 맑은 재미

산머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놀리라.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

멀리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을 새가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이 아닌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
–세속을 초월한 강촌 생활



작품명과 작가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행 비판 대상 인물의 제시

2~5행 개똥이의 처신 개관

6~끝 행 개똥이의 비도덕적 행위 묘사

주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표현상의 특징

1. 대구와 4음보로 강한 율격을 드러낸다.
2. 시적 대상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3. 인물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여 해학미를 드러낸다.

해제 이 작품은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을 가차 없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부가(愚夫歌) – 작가 미상

내 말씀 광언*인가 저 화상 구경하게.
남촌한량* 개똥이는 부모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제넘어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매 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놀이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첩 치가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 조방꾸니* 안방에는 노구할미*
명조상을 떠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 보아 진봉*하기 재업을 까불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빚이 태산이다.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하여서 ⓐ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 하여 돈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도망하여* 계집 자식 재물 수탐
일가 친척 구박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짊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날 데 없는 용전여수* 상하탱석* 하여 가니
손님은 채객*이요 윤의*는 내 몰라라.

* **광언** : 미친소리.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 **조방꾸니** : 바람피우는 것을 돕는 사람 .
* **명조상** : 이름난 조상.
* **염량** : 더위와 추위.
* **승기자** : 자기보다 나은 사람.
* **반복 소인**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사람.
* **경계판** : 관의 바탕면.
* **활량** : 무위도식하는 사람.
* **시체** : 철에 따라.
* **노구할미** : 뚜쟁이 노릇을 하는 노파.
* **떠세하고** : 젠 체하고 억지를 쓰고.
* **진봉** : 권문세가에 뇌물을 갖다 바침.
* **염지하니** : 싫어하니.
* **도망하여** : 완전히 잊고.
* **용전여수** : 돈을 물처럼 흔하게 씀.

* 상하탱석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임시변통.
* 채객 : 빚쟁이.
* 윤의 : 윤리와 의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의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으로, 부정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③ 풍자의 기법으로, 대상의 행위를 비꼬아 공격하고 있다.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⑤ 대화체를 활용하여,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관용구를 활용하여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드러낸다.
② ㉡ : 대구를 활용하여 유사한 행동을 드러낸다.
③ ㉢ : 과장을 활용하여 부지런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④ ㉣ : 대조를 활용하여 도리에 어긋남을 드러낸다.
⑤ ㉤ : 대조를 활용하여 예의가 없음을 드러낸다.

03 시상 전개상 ⓐ에 들어갈 시구는?

① 수백냥이 헛것이다.
② 울타리가 땔나무다.
③ 원망하는 소리로다.
④ 사람마다 도적이라.
⑤ 입구멍이 제일이라.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로 시작된 이 가사는 개똥이의 행적을 가차 없이 서술해 나간다. '저 인간'이란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인간 같지 않은 행적을 다소 과장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웃음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대어역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문 현대어역〉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여 소견머리가 없는데다가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없이 주제 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한다. 긴긴 봄날에 낮잠이나 자고 아침저녁으로 반찬 투정을 하며, 항상 놀고먹는 팔자로 술집에 무상출입하여 매일 취해서 게트림을 하고, 이리 모여서 노름하기, 저리 모여서 투전질에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넉넉히 마련해 주고 오입쟁이 친구로다. 사랑방에는 조방군, 안방에는 뚜쟁이 할머니가 드나들고, 조상을 팔아 위세를 떨고 세도를 찾아 기웃기웃하며, 세도를 따라 뇌물을 바치느라고 재산을 날리고, 헛된 욕심으로 장사를 하여 남의 빚이 태산처럼 많다.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가 고플 지경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계집 자식과 재물만 좋아하며, 일가친척을 구박하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 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도 물처럼 쓰고 나서 임시변통하기에 바쁘고, 오는 손님은 모두 빚쟁이이고, 사람의 도리는 모른 체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리화 – 이제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黃雀何方來去飛)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一年農事不曾知)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맸는데, (鰥翁獨自耕耘了)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耗盡田中禾黍爲)

나 고시조 – 이존오

㉠구룸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이셔 임의(任意)로 단니면서
구타야 광명(光明)한 날빗츨 따라가며 덥나니.

다 고시조 – 신흠

냇가의 해오랍아* 무스 일* 서 있는다?
무심한 저 고기를 여어* 무슴하려는다?*
아마도 한 물에 있거니 니저신들 어떠리.

* 해오랍아 : 해오라기(백로)야.
* 여어 : 엿어, 엿보아서, 노려보아.
* 무스 일 : 무슨 일로.
* 무슴하려는다? : 무엇하려느냐?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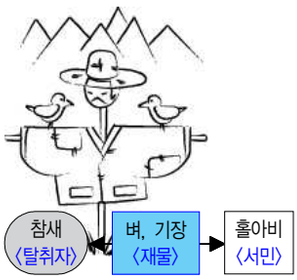
①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②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⑤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져서 자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02 (가)와 유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①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武斷)을 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의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 양반전
②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한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춘초(春草)는 연년록(年年綠)하되 왕손(王孫)은 귀불귀(歸不歸)라, 날로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제 만세 무량하옵소서, 다시 보긴 망연이라. – 춘향전

작품명과 작가
㉮사리화, 이제현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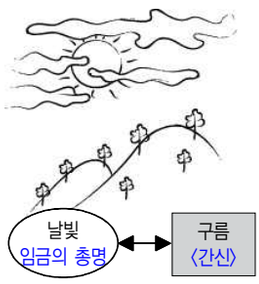
주제 |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이 시에서 '참새'는 평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상징하고, '늙은 홀아비'는 수탈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농민을 상징한다.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지 못하고 참새에 비유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서글픈 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이존오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간신의 횡포 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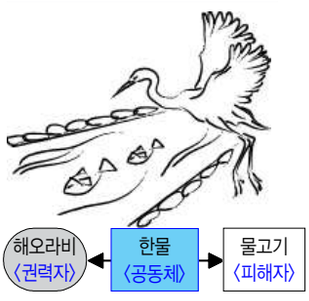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초장의 '구름'은 간신 신돈을 가리키며, 그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구는 태도를 중장에서 형상화해 놓고 있다. 마지막 종장의 '광명'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을 비유한 것이고,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신돈의 횡포를 개탄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신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약육강식의 세태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공박하지 않고, '냇가의 해오라기'와 '물 속의 고기' 등으로 바꾸어서 풍자하여 뛰어난 작품성을 띠고 있다. 초장의 '해오랍'은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장의 '고기'는 '해오라비'에 대한 희생물로서 약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장의 '한 물'은 '한 나라, 공동체'를 뜻한다. 즉,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습을 꼬집으며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③ 가난이야 가난이야 만고에 있는 가난. 아무리 헤아려도 내 옷수의 가난은 다시 없네. 아주 좁고 찢어지게 가난하여 도정절의 가난하기도 내 집에 비하면 대궐이요, 삼순구식 십년일관이란 정관문의 가난하기도 내게 대면 부자로다. – 흥부전

④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 호질

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 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 허생전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다음 밑줄 친 단어가 ㉠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은?

①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야?
새파란 나리에
耆郎(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 찬기파랑가, 충담사

② 바롬도 쉬여 넘ᄂᆞᆫ 고ᄀᆡ 구름이라도 쉬여 넘ᄂᆞᆫ 고ᄀᆡ,
산진(山眞)이 수진(水眞)이 해동청(海東靑) 보라ᄆᆡ라도 다 쉬여 넘ᄂᆞᆫ 고봉(高峰) 장성령 고ᄀᆡ.
그 넘어 님이 왓다 ᄒᆞ면, 나ᄂᆞᆫ 아니 ᄒᆞᆫ 번도 쉬여 넘으리라.
– 사설 시조, 작가 미상

③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ᄂᆡ. 煙霞日輝(연하 일휘)ᄂᆞᆫ 錦繡(금수)를 재폇ᄂᆞᆫ ᄃᆞᆺ.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有餘(유여)ᄒᆞᆯ샤. – 상춘곡, 정극인

④ 가온대 구ᄇᆡᄂᆞᆫ 굼긔 든 늘근 뇽이 션즘을 ᄀᆞᆺ ᄭᅵ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ᄅᆞ바회 위히 松竹(송죽)을 헤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ᄐᆞᆫ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ᄂᆞ래 버렷ᄂᆞᆫ ᄃᆞᆺ. – 면앙정가, 송순

⑤ 日일出출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 祥샹雲운이 집픠ᄂᆞᆫ 동, 六뉵龍뇽이 바퇴ᄂᆞᆫ 동, 바다히 ᄯᅥ날 제ᄂᆞᆫ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텬中듕의 티ᄯᅳ니 毫호髮발을 혜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 관동별곡, 정철

(가) 사리화, 이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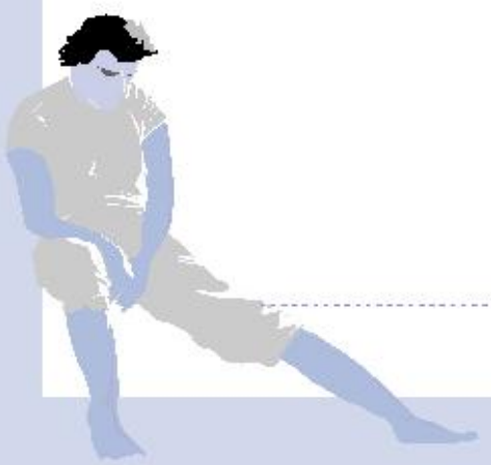
세상사를 자연적인 일에 빗대어 풍자하는 시다. 참새가 탐관오리를 나타낸다면 늙은 홀아비는 가난한 서민, 벼와 기장은 재물을 상징한다. 한 숨이 묻어나는 시다.

(나) 고시조, 이존오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공박하지 않고, '냇가의 해오라기'와 '물 속의 고기' 등으로 바꾸어서 풍자적으로 꼬집고 있다. '해오랍'은 물고기를 탐내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기'는 '해오라비'에 대한 희생물로서 약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물'은 '한 나라, 공동체'를 뜻한다. 즉,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습을 꼬집으며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고시조, 신흠

관습적 상징을 이용하여 시적 의미를 일반화하여 이해해 보자. '해'가 임금을 의미한다면 '구름'은 임금의 총명이나 광명을 가리는 존재가 되므로 '간신'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임의로 다닌다란 말은 뜻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니 간신이 제멋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광명'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을 비유한 것이고,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간신의 횡포를 개탄하고 있다. 물론 배경 지식을 보아 간신을 신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작품명과 작가
㉮ 못 잊어,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잊히오리다 ↔ 반어 → 못 잊어

주제 |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

표현상의 특징

1. 민요조의 3음보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
2.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3.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강한 율격미를 형성한다.

해제 이 시는 전체적으로 3음보의 율격을 유지하면서 마치 임을 잊을 수 있는 듯 반어적으로 표현하다가 끝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못 잊는다는 고백적 시상 전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즐거히 살아가리 ↔ 반어 → 타향에서의 고달픈 삶
구름 → 고향으로 감 → 나×

주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실향의 고통

표현상의 특징

1.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2.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과장하여 심적 거리를 표현하고 있다.
3. 시적 화자와 대조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지척에 있는 고향에 못 가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과장법을 활용하여 잘 표현하고 있으며 타향살이의 고통을 반어를 이용해 형상화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못 잊어 –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

㉯ 오늘도 고향은 – 김기림

〈Ⅰ〉 오늘도 고향은 천리요 또 오백리
뜻하지 않은 위도(緯度)가 은하로구나

〈Ⅱ〉 사랑스런 살붙이들
쟁쟁한 목소리 아물거리는 얼골

〈Ⅲ〉 도시 허위잡을 수 없이
구름만 북으로 밀려가는구나

〈Ⅳ〉 여러 십년 하루같이 모든 것을 고대턴 것
눈앞에 어른거리면서도 종내 나서지 않아
동무와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며

〈Ⅴ〉 목이 말라 가슴이 타 냉수를 켜며
이 달도 손때 밴 자전(字典)을 팔아 즐거히 살아가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과 유사한 연을 (나)에서 찾으면?

① Ⅰ ② Ⅱ ③ Ⅲ ④ Ⅳ ⑤ 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무 –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작품명과 작가

농무, 신경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술 : 원통하다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 반어× 역설○

춤 : 신명이 난다

주제 |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실 참여적인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2. 역설적 표현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서사적 구성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해제 이 시는 서사적 행위를 하는 화자가 사회적 현실을 체험하면서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을 역설적 표현에 담아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2 위 시의 ㉠과 표현 기법이 같은 것은?

① 겨자씨 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
복숭아 가지나 아가위 가지에 앉은
배부른 흰 새 모양으로
잠깐 앉았다 떨어지면 돼. – 김수영, 장시 일

②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 김남조, 생명

③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백석, 여승

④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 김소월, 접동새

⑤ 지상의 시는
지혜의 허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지혜의 비극을 구한다.
분명히 태초의 행위가 있다. – 임화, 지상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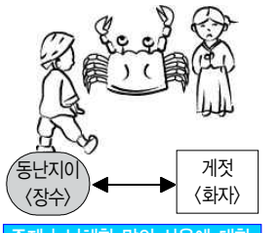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작가 미상

고시조 – 작가 미상

ᄃᆡ들에 동난지이 사오. 져 쟝스야, 네 황후 긔 무서시라 웨ᄂᆞᆫ다, 사쟈.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
쟝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ᄒᆞ렴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난해한 말의 사용에 대한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2.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꼬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대화체로 되어 있으며 게를 해학적으로 묘사하면서 한자어를 쓰는 데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위 시에 드러난 화자의 의도 표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꼬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③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래 의도와 상반되게 말하고 있다.
④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순된 논리 속에 냉철한 진리를 담고 있다.
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망과 좌절을 직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 –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작품명과 작가

눈, 김수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젊은 시인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가래 : 부정적 현실로 맺힌 한

눈
가래가 잘 드러나게 하는 존재

주제 | 정의롭고 순수한 삶에의 소망과 의지

표현상의 특징

1. 점층적 반복으로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2. 상징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3. 단호하고 강인한 어조를 구사하여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해제 이 시는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순수한 삶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가래를 눈 위에 뱉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눈 즉 순수함에 의존해야만 정의롭지 못한 삶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렇게 해야만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의 주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4 위 시의 첫째 연에서 사용된 표현 기교가 구사된 것은?

① 일체의 수속(手續)이 싫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뚫고 드는
우울을 견디다 못해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 조병화, 주점

②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③ 밤은, / 푸른 안개에 싸인 호수
나는, / 잠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다. – 김동명, 밤

④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밭이 한참갈이
괭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⑤ 고개 숙여 성 옆을 더듬어 가면
시정(市井)의 노랫소리도 오히려 태고 같고
문득 치켜든 머리 위에선
낮달도 파르르 떨며 흐른다. – 서정주, 광화문

작품명과 작가

벽모(碧毛)의 묘(猫), 황석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인간 영혼 구제의 불가능성

표현상의 특징

1.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화체로 구성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자아낸다.
2.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양이의 의미를 확보해야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악마적 심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이 갖는 착한 마음이 악마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오뇌, 운명의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세기말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벽모(碧毛)의 묘(猫) – 황석우

어느 날 내 영혼의
낮잠터 되는
사막의 위 숲 그늘로서
파란 털의
고양이가 내 고적한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이애, 너의
온갖 오뇌, 운명을
나의 끓는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삶아 주마.
만일에 네 마음이
우리들의 세계의
태양이 되기만 하면,
기독(基督)이 되기만 하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5 위 시의 밑줄 친 부분은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①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 변영로, 논개

② 옛날, 우리 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 김소월, 접동새

③ 가자 가자 /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이육사, 꽃

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1. (가) 못 잊어,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로 시상을 응축시키고 이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임을 잊을 수 있는 듯 반어적으로 표현하다가 끝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못 잊는다는 고백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란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지독한 그리움의 표현에 해당한다. 3음보의 율격은 민요조의 율격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나)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고향은 천리요 또 오백리라 하였으니 합은 천 오백리다. 그것을 위도로 받아 다시 은하로 과장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고향에 대한 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심적 거리에 반해 그리운 대상들은 더 없이 많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구름은 가고 있으니 시적 화자는 더욱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 고통을 십년을 하루같이 고대턴 것이라는 말로 표출하고 끝내는 손 때 밴 자전을 팔아 즐거히 살아갈 것이라는 반어로 절망감을 털어 놓는다.

2.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리고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는 막이 내린다.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을 때 때론 비애에 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며 소주를 마시는 이유를 제시한다.

장거리로 나서도 조무래기들만 따라 붙어 누구는 임꺽정처럼 울부짖고 누구는 서림이처럼 해해댄다.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는 비애의 근원을 비료도 안 나오는 농사로 밝히고 있다. 애쓴 보람이 없을 때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도살장, 죽음의 공간 앞에 농무를 출 때 슬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나는 것은 무엇일까? 춤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비애의 상황에서도 춤은 정말 신명이 나게 만든다. 살풀이를 하는 무당의 춤에서 우리가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이리라. 그래서 반어가 아닌 역설이 되면서 우릴 더 슬프게 한다. 한 편의 동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서사적 구성 때문이다.

3. 고시조, 작가 미상

동난지이를 사라고 외친다. 궁금한 어느 주부는 장사꾼에게 묻는다. 네 물건이 무엇이냐? 대답이 요란스럽다. 밖에는 뼈, 안에는 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논리가 튀어 나온다. 두 눈이 하늘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뒤로도 잘 가는, 작은 다리가 여덟 개, 큰 다리가 두 개이면서 맑은 장이 아사삭 깨물 때 터지는 동난지이를 사란다.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계젓이라 하라는 말이 웃음 속에서도 섬뜩한 느낌을 자아낸다. 풍자의 묘미다.

4.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순수한 삶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가래를 눈 위에 뱉어 내기 위한 것이다. 더러운 가래는 세상사와 관련된 것이다. 젊은 시인이 지닌 세상에 대한 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 즉 순수함에 의존해야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시는 현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벽모(碧毛)의 묘(猫), 황석우

이 시는 고양이의 의미를 확보해야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악마적 심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이 갖는 착한 마음이 악마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오뇌, 운명의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세기말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